

17정-8호 2017.7.7

새 정부 일자리 정책 및 최저임금관련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사업본부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

목 차

■ 새 정부 일자리 정책 및 최저임금관련 설문조사

1. 개 요 p1
2. 실태조사(I) : 기본항목 p2
3. 실태조사(II) : 일자리 정책관련 p3
4. 실태조사(III) : 경영환경 중 최저임금관련 p8
5. 실태조사 분석 p12

☐ 본 보고서는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소상공인연합회 내부 자료임으로 외부 유출에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통계측정은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며, 분석 자료는 기타자료를 참고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 및 전재하기 위해서는 바른사회시민회의 또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문의: 소상공인연합회(정 원 석 국장 1522-0500, wayne0579@kfme.or.kr)

바른사회시민회의(양 성 옥 팀장 070-8897-8382, piyrwaz@nate.com)

□ 개 요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새 정부의 일자리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 친화적으로 전환하여 “동반성장-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것을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위원회에서 제시한 13대 과제 중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1만원 조기 달성] 과제는 중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정책과 최저임금관련 소상공인들의 우려와 요청을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새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 조사개요

- 기 간: 2017년 06월 12일 (월)부터 ~ 07월 07일(금)
- 대 상: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단체 회원 및 일반소상공인 소상공인 사업주
- 주요업종: 외식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 기타
- 조사인원: 총 517명
- 조사방법: 오프라인 설문지배포, 온라인 설문참여 공동 (서술, 객관식설문 혼합)

□ 설문구성

A문항(기본정보)	B문항(일자리 정책관련)	C문항(경영환경 중 최저임금관련)
성별, 연령층, 업종 거주지, 소속 협회 단체.	최저임금1만원, 비정규직 제로, 근로시간 단축, 근로감독관으로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문제점 파악	최저임금 1만원 시 소상공인 사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의 건의사항 등

□ 실태조사업체 현황

○ 거주별 구분 (총:444명)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경남	경북	울산	부산	대구
수(분포)	61(13.7%)	103(23.2%)	27(6.7%)	28(6.3%)	5(1.1%)	3(0.7%)	31(7%)	6(1.4%)
지역	충북	충남	대전	광주	전북	전남	강원	제주
수(분포)	7(1.6%)	16(3.6%)	21(4.7%)	10(2.3%)	75(16.9%)	8(1.8%)	35(7.9%)	7(1.6%)

- 거주자별 조회 현황 중 경기의 참여자가 가장 많음.

□ 실태조사 I. 설문조사 기본항목 (A)

A1. 귀하의 성별은?

○ 응답 (총:503명)

남성	여성
355(70.6%)	148(29.4%)

A2. 귀하의 연령대는?

○ 응답 (총:508명)

10-20대	20-30대	30-40대	40-50대	50-60대	60-70대	70대
0	13(2.6%)	68(13.4%)	189(37.2%)	187(36.8%)	45(8.9%)	6(1.2%)

- 응답자의 40-60대 연령층이 가장 많음. 전체 응답자의 74%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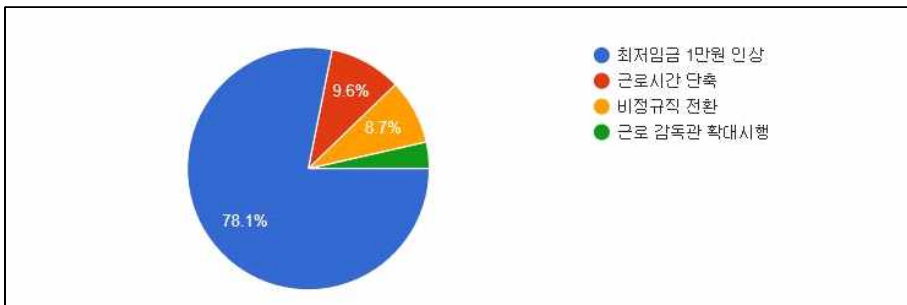
A3. 귀하는 다음 중 어떤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1. 외식업 (음식점, 술집 등)	95(19.2%)
2. 도매 및 소매 (가스, 음반, 의류, 수퍼, 주유, 안경, 과일, 계란, 컴퓨터소프트웨어, 화장품, 화원, 자전거, 자동차킬러범퍼, 석유, 등)	125(25.2%)
3. 제조업 (옥외광고, 차량산업, 가발, 귀금속, 제빵공업 등)	23(4.6%)
4. 숙박업 (호텔, 모텔,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3(0.6%)
5. 운수업 (택시, 택배, 용달, 대리운전 등)	2(0.4%)
6. 출판 (서점, 사진편집, 디자인 등)	16(3.2%)
7. 부동산업 및 임대업	6(1.2%)
8. 생활서비스 (이용, 미용, 세탁, 등)	58(11.7%)
9. 기술서비스 (자동차정비, 인테리어, 보일러설비, 열쇠 등)	59(11.9%)
10. 교육서비스 (학원, 어린이집 등)	4(0.8%)
11. 관광 및 여가 (PC방, 노래방, 시뮬레이션골프 등)	10(2%)
12. 기타업종	95(19.2%)

-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 25.2%로 가장 높았으며, 숙박업, 운수업이 저조하게 참여하였음.

□ 실태조사Ⅱ. 새 정부 일자리 정책관련 (B)

B1. 중소기업인에게 가장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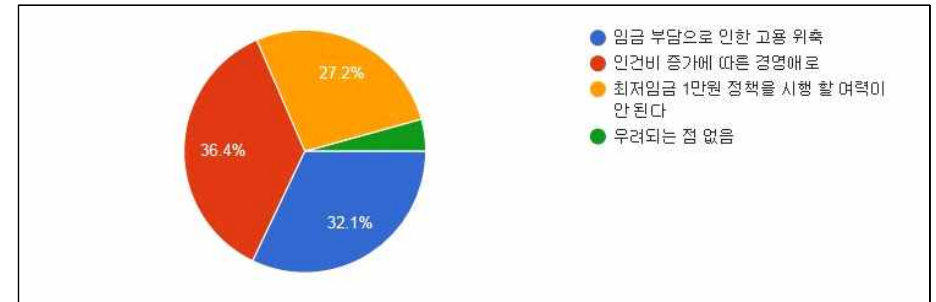


○ 응답 (총:508명)

최저임금 1만원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전환	근로감독관 확대시행
397(78.1%)	49(9.6%)	44(8.7%)	18(3.5%)

- 전체 응답자의 78.1%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부담되는 일자리 정책이라고 응답하였음.

B2. 최저임금 1만원을 시행 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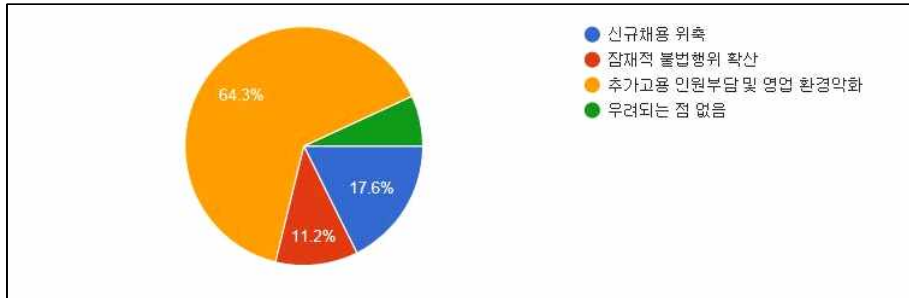
○ 응답 (총:514명)

임금 부담으로 인한 고용 위축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경영애로	최저임금 1만원 정책 시행 할 여력없음	우려되는 점 없음
165(32.1%)	187(36.4%)	140(27.2%)	22(4.3%)

- 전체 응답자의 68.5%가 최저임금인상으로 경영애로의 문제점과 임금부담으로 고용 위축을 염려함.

- 전체 응답자의 27.2%는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시행 할 여력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B3.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 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은?



○ 응답 (총:510명)

추가고용 인원부담 영업 환경악화	신규채용 위축	잠재적 불법행위 확산	우려되는 점 없음
328(64.3%)	90(17.6%)	57(11.2%)	3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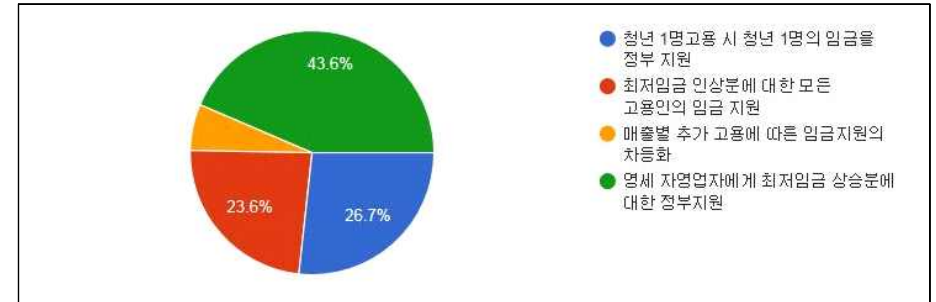
- 전체 응답자의 64.3%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 시, 추가고용 인원부담 및 영업 환경 악화를 염려하고, 17.6%는 신규채용 위축을 우려한다고 답하였음.
- 즉, 전체응답자의 81.9%는 근로시간단축 시 추가고용과 신규채용에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B4. 중소기업이 청년 2명 고용 시 청년 1명에 대한 임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 정책 시행 시 소상공인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 (총:508명)

예	아니오
450(88.6%)	58(11.4%)

B5. 4번의 정책이 소상공인에게도 확대된다면 가장 적당한 임금 보전의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응답 (총:505명)

영세 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한 정부지원	220(43.6%)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모든 고용인의 임금 지원	119(23.6%)
청년1명고용 시 청년 1명의 임금을 정부 지원	135(26.7%)
매출별 추가 고용에 따른 임금지원의 차등화	31(6.1%)

-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청년고용지원을 할 경우,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한 정부지원요청을 바란다는 응답이 43.6%,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모든 고용인의 임금지원이 23.6% 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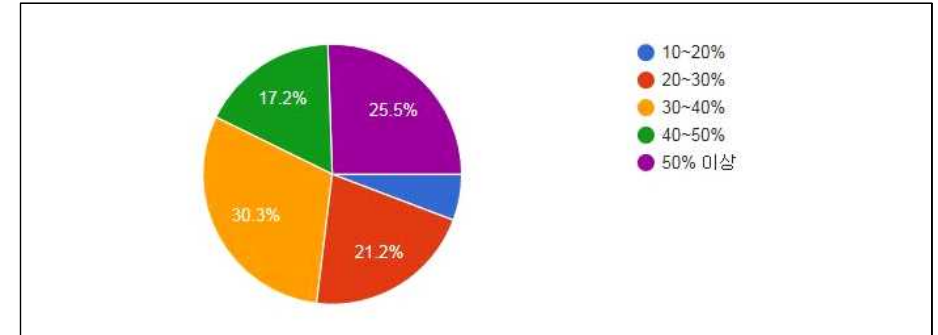
B6. 5번 질문에 대한 기타의견 ?

○ 응답 (총:51명)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기타의견	
1.	최저 임금의 상승은 소상공인의 경영악화로 이어지며 물가상승의 원인이 됨
2.	세금을 내는 기준에 따라서 고용임금에 대한 차등을 두어야함.
3.	영세 자영업자는 기본종사원의 월급 지급도 어려움이 있음.
4.	자영업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야 일자리도 확대될 것이라 생각함.
5.	자영업자는 18시간 일하고 최저임금도 못 받음
6.	영세 자영업자는 다수가 홀로 일하고 있음으로 2명 근로자 고용 1명지원은 불공정. 불합리
7.	노동의 경중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차등되길 바랍.
8.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외식업장에 음식가격도 올릴 수 있어야 공평함.
9.	지급도 폐업을 고민 중인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점포를 포기하고 폐업해야 할 듯함
10.	소상공인 현안에 맞추어서 최저임과 고용시간단축 정책을 만들었으면 함.
11.	소상공인 세액감면, 카드수수료 인하 등이 고려되어야 함.
12.	근로자 인상은 정부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 또한 세금입으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함.
13.	소상공인지원은 없고 노동자 지원만 있는 듯함
14.	가게 규모를 줄이기 위해 가족경영으로 바뀌어야 하는 현실임.
15.	차별적으로 업종별 맞춤형으로 최저임금을 선택했으면 좋겠음.
16.	최저임금 인상보다 물가안정과 임금평균이 중요함
17.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인의 가치도 높아져야 하나 권리가 커지나 일은 점차 줄어들
18.	소상공인의 권역을 보호해야 함.
19.	부가세 비용 항목에 인건비도 추가되어야 함.
20.	청년은 3D일을 꺼려하는 이유가 있음으로 인건비 상승이 되면 청년일자리 창출보다는 외국인 고용이 늘어날 듯함.

□ 실태조사Ⅲ. 경영환경 중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

C1. 월 매출액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 응답 (총:505명)

10~20%	20~30%	30~40%	40~50%	50%이상
29(5.7%)	107(21.2%)	153(30.3%)	87(17.2%)	129(25.5%)

-. 전체응답자의 30.3%가 월 매출액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40%라고 응답함. 월 매출액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인 응답자는 42.7% 임.

-. 월 매출액 중 30% 이상을 인건비에 지출하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73%에 달함.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미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인건비에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C2. 현재 최저임금액(6,470원)에 대해 부담을 느끼십니까?

○ 응답 (총:510명)

매우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모르겠음
141(27.6%)	239(46.9%)	101(19.8%)	13(2.5%)	16(3.1%)

- 전체 응답자의 46.9%가 현재 최저임금액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27.6%는 매우 느낀다고 응답해, 74.5%가 현재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C3. 최저임금(시급)이 1만원 인상되면 본인 수익에 몇 %가 삭감 예정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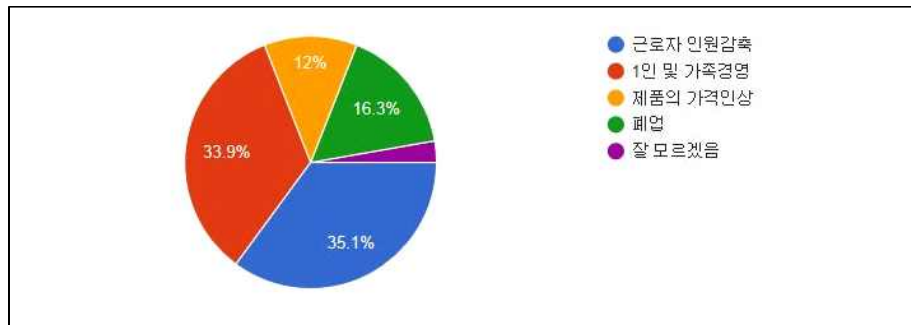
○ 응답 (총:503명)

5~10%	10~20%	20~30%	30~40%	40%이상
51(10.1%)	112(22.3%)	126(25%)	104(20.7%)	110(21.9%)

- 전체 응답자의 25%가 최저임금이 1만원 인상되면 본인 수익에 20~30%가 삭감 예정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0% 이상의 수익이 삭감 된다는 응답자는 42.6%에 달함.

C4.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어려워질 경우, 대책은 무엇입니까?

○ 응답 (총:5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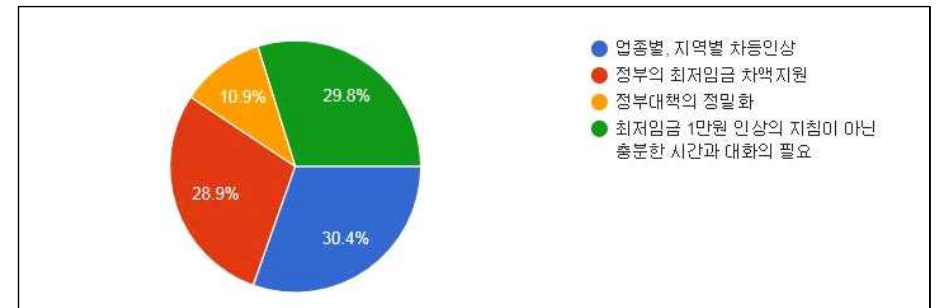


근로자인원감축	1인 및 가족경영	제품의 가격인상	폐업	잘 모르겠음
179(35.1%)	173(33.9%)	61(12%)	83(16.3%)	14(2.7%)

- 전체 응답자의 35.1%가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어려워질 경우, 근로자 인원감축을 대책으로 응답했으며, 1인 및 가족경영으로 전환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33.9% 임. 전체 응답자의 70%가 인원감축 및 가족경영으로의 전환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

- 그 밖에 제품가격인상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이 12%, 폐업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16.3%에 달했음.

C5.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해 문제점을 느끼신다면, 해결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응답 (총:506명)

업종별, 지역별 차등인상	154(30.4%)
정부의 최저임금 차액지원	146(28.9%)
정부대책의 정밀화	55(10.9%)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의 지침이 아닌 충분한 시간과 대화의 필요	151(29.8%)

- 전체 응답자의 30.4%가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해결책으로 답하였음.

-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지침이 아닌 충분한 대화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29.8%에 달했음.

C6. 10번 질문의 기타 해결사항이나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한 의사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자유기술)

○ 응답 (총:87명)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1.	임금인상은 물가인상과 같다.
2.	소득 규모의 정밀한 판단에 정부 역량을 투자하여 소득규모에 따른 합리적인 임금 적용이 우선시 되어야함.
3.	근로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함.
4.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함.
5.	아직 시기상조인 정책.
6.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물가도 따라 올라가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삶이 더 윤택해 지는 것은 없다고 봄.
7.	임금인상만이 능사가 아닌 사람들의 자질이나 인성 및 자기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8.	300만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이 되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
9.	인건비 부담에 따른 경영영향
10.	인상분만큼 인원감축과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기에 고용확대 명분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은 환경이 나빠질 것.
11.	정부는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함.
12.	업종별 대책이 필요함.
13.	업종별 전수조사가 절실히 필요함.
14.	최저임금 인상은 환영하는데 나 자신은 대책이 없음.
15.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가 걱정됨.
16.	강제성 없이 업체 자체의 경영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야함.
17.	소상공인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함.
18.	경기만 좋아진다면 자연스레 고용도 창출될 것이고 임금부담도 줄어 들 것이다.
19.	일방적 강압적 인상이 아닌 지역별 업종별 차등을 두고 해야 함.
20.	충분한 대화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시행되길 소망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도 충분히 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문 1 새 정부 일자리 정책관련 설문조사

○ 본 설문에 의하면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 중에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일자리 정책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다. (전체 78.1%)

▶ 현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을 시행 할 경우 우려는 문제점은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경영애로**라 응답하였다. (36.4%)

○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관하여서는 **추가고용 인원부담 및 영업 환경악화**가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64.3%).

○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정책 중 **청년 2명 고용 시 1명에 대한 임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소상공인에게 확대희망** 응답 (88.6%) 이다.

○ 정부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임금을 보조하는 방식으로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한 요청**이 (43.6%)가장 많았다.

분석1

○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중 최저임금 1만원 상승에 대한 소상공인의 걱정과 우려가 반증된 응답 결과였다. 현 정부의 비정규직제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의 정책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은 추가고용 인원부담 및 영업 환경악화에 대한 우려가 많다.

○ 일방적인 임금인상에 따른 최저 임금에 대한 정부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정비 지출에 대한 지원책으로 세금감면의 대한 의견이 많았으며, 최저임금 인상이전에 경기안정 및 물가안정 정책을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노동의 차이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최저임금에 대한 차등을 두자는 의견이 있다. 이는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지만 수용을 할 시에는 그에 따른 실천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설문2

경영환경 중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

- 월 매출액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40%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30.3%로 3명중에 1명은 인건비의 부담이 30%이상이란 뜻이다.
- 현재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에 대해선 46.9% 가 부담을 느끼고, 27.6%가 매우 부담을 느낀다 로 응답함.

▶ 현재 최저임금 액수(6,470원)에 대한 부담률이 높다. (74.5%)

-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본인 수익에 20~30%가 삭감될 예정이라 25%가 응답함
- 전체 응답자의 35.1%가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어려워질 경우, 근로자 인원감축을 대책으로 응답함
- 전체 응답자의 30.4%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해 업종별, 지역별 차등 인상을 해결책으로 응답함.

분석2

- 응답자의 74.5%가 현재의 최저임금 액수에도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을 나타난 것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증명하는 응답이라 할 수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은 소상공인의 생존의 문제를 담고 있는 것으로 최저임금인상으로 오히려 경영자의 임금이 삭감되고 경영애로의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
- 3인 중 1인의 응답자가 최저임금으로 경영환경이 나빠질 경우 근로자 인원감축의 대책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사업장의 대한 축소와 폐업으로 이어짐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소상공인들이 받을 타격은 심각함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일방적인 인상이 아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